

## 노인부양의 사회화 인식에 관한 연구: 대학생과 부모조사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김혜경\*  
(나사렛대학교)

박천만  
(계명대학교)

中嶋和夫  
(岡山縣立大學)

우리사회는 가속되는 인구고령화를 경험하면서 기존의 가족부양에만 의존하던 노인 부양의 책임을 사회적 책임으로 분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게 되었다. 보험 도입 이후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사회 구성원의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화 인식'을 검토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통하여 노인부양의 사회화 인식과 이에 관련된 요인을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부양의 사회화 인식, 수단적 부양의 식, 정서적 부양의식, 가족응집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양의 사회화에 대한 인식에서 대학생은 [병원·시설과 가족] 혹은 [정부와 가족]이 공동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반면, 부모인 중장년세대는 [시설] 혹은 [가족]이 각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부양의 사회화 인식은 대학생에 비해 부모조사에서 높게 나타났다. 둘째, 부양의 사회화 인식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경우 수단적 및 정서적 부양의식이 부양의 사회화 인식과 유의미한 관련을 보여, 부양의식이 낮을수록 부양의 사회화 인식이 높았다. 한편 부모조사에서는 수단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가족응집성 모두 부양의 사회화 인식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부양의식이 낮거나 가족응집성이 낮을수록 부양의 사회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부양의 사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정서적 부양과 같은 가족 고유의 부양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가족과 사회가 공동으로 노인부양을 담당하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주요용어: 노인부양의 사회화 인식, 부양의식, 가족응집성, 대학생-부모조사

본 연구는 2010년도 나사렛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김혜경, 나사렛대학교(kyung@kornu.ac.kr)

■ 투고일: 2010. 3. 9    ■ 수정일: 2010. 4. 26    ■ 게재확정일: 2010. 5. 1

## I. 서론

전통 농경사회에서 노부모 부양은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신체적 수발, 정서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장남을 중심으로 한 자녀세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수행해 왔었다. 그리고 부모부양을 책임지는 자녀(주로 장남)는 부양의 대가로 전답을 물려받음으로써 자연스러운 '가정 내 사회보장'이 이루어졌다(김혜경, 2008).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 핵가족화의 진전과 같은 사회변화를 경험하면서 특히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부양의 책임을 더 이상 가족에게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가족 부양능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 중에서 노후의 신체적 부양을 더 이상 가족만이 아닌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노인복지정책과 관련된 연구과제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각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첫째, 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연구로 제도의 법적 근거, 재정구조, 전달체계, 등급판정에 관한 문제, 보험 수가개발, 서비스 이용행태 등과 같은 제도의 구조적인 부분을 분석한 연구가 큰 주류를 이룬다(권순만·박건희, 2006; 정재욱, 2009; 신혜정, 2009; 석재은, 2008; 임정기 외, 2008; 이준복, 2008; 서동민, 2008; 이윤경, 2009). 둘째로 제도 실시에 필요한 서비스 인프라와 관련된 연구가 발표되어 서비스 수요의 결정요인 분석을 비롯하여 시설 및 재가서비스 인프라 구축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최승호, 2008; 전병힐, 2008; 정완교, 2009; 이준우·서문진희, 2009). 셋째로 케어전문인력에 관한 연구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확보,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 방문간호사의 역할 조명 등이 이루어졌다(손용진, 2007; 조추용, 2007; 김명희, 2009; 장우심, 2009). 넷째, 제도의 발전방향이나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이용석, 2008; 이동영·이재현, 2008; 송신섭, 2008).

'누가 노인부양을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을 비롯한 비공식적 지원체계와 공적인 서비스를 대표로 하는 공적 지원체계의 상대적 우위가 논의되어 왔다. 즉 한편에서는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부양능력을 상실한 가족보다 공적 지원체계의 대체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고, 반면 공적 지원체계로는 대체할 수 없는 가족의 역할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가족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대립적이다(박경숙, 2002).

한편, 우리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 더불어 노인부양을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려는 의지를 보였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사회에 이미 부양의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부양의 사회화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어떠한지, 그리고 부양의 사회화 인식은 세대별로 동일한지 상이한지, 나아가 이러한 인식에 부양의식이나 가족응집성과 같은 요인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검토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그들의 부모세대 조사를 통해 부양의 사회화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대학생은 청년세대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서이며 그들의 부모를 통해 중장년의 의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동일가족에서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부양의 사회화 인식을 검토함으로써 순수한 세대별 인식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양의 사회화 인식 및 이에 관련된 요인의 동일 가족 내 세대별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노인부양관련 정책의 방향성에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노인부양의 사회화'의 개념과 의의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선가정보호 후사회보장' 정책을 전개하여 노후의 부양책임은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가하여 왔다.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이에 따른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가족 부양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더 이상 자녀세대에게 노부모 부양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에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을 계기로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확대되었고, 이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압축적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의 신체적 부양에 대한 국가적 정책 대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에 도입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사회적 노력으로 부양이 필요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소위 '노인부양의 사회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일본의 개호보험이었다. 개호보험은 기존에 가족에게 맡겨졌던 노인부양을 공적 자원을 활용한 지원 즉 공공적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가장 중시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부양의 사회화'

개념은 小笠原에 의하면 ‘신체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잔존능력을 개발하고 자기실현이 가능하도록 할 뿐 아니라 부양으로 인해 가족에게만 과중한 부담을 떠맡기지 않고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 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사회가 가족과 함께 노인 부양을 부담해 나가는 것을 지향하는 것’으로 정의한다(小笠原, 2007). 한편 増田는 노인부양의 위험부담을 보편화하여 부양서비스 이용을 일반화함으로써 부양에 수반되는 부담을 가족에게만 요구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 및 비용 부담면에서 노인과 가족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았다. 덧붙이면 일본의 개호보험이나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부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전체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하고 욕구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부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회연대를 기초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増田, 2003). 부양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은 부양에 대한 인식, 부양행동, 부양환경 정비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부양에 대한 인식은 부양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일차적인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사회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돌봄 바우처 사업이 도입되면서 부양서비스의 사회화 및 공공성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석재은, 2009b). 본 연구에서는 노인부양의 사회화를 위해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부양의 사회화에 대한 인식을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하고, 부양의식, 가족응집성 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부양의식, 가족응집성이 부양의 사회화 인식과는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실제로 부양의 사회화를 실현을 위해서는 부양의 사회화 정책에 대해 구성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와 같은 인식뿐 아니라 부양환경의 정비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양의 사회화 인식에 초점을 두고 논의코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둘러싼 부양의 방향에 필요한 기본적인 방향설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노인부양에 관한 선행연구

1980년대 이후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면서 노인부양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부양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나누면 부양의식에 관련된 일련의 연구와 부양부담에 관련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박재간은 일찍이 80년대에 노인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점에서 가족부양능력의 한계를 예측하고 개인적 및 사회적 노후준비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박재간, 1985). 이후 본격적인 부양의식과 관련된 연구가 축적되면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 부양의식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대학생에 비해 노인부양의식이 낮으며, 남학생의 부양의식이 여학생에 비해 낮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임인혜·박명운, 1987). 이후 부양의식과 관련된 조사는 다수 이루어져 조사 대상자에 있어서 며느리나 딸과 같은 부양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송다영, 2004; 서병숙·이신숙, 1991; 서소영·김명자, 1998; 임춘희·정옥분, 1998; 최정혜, 1997; 최정혜, 1998)와 향후 부양 당사자에 합류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김윤정·장세철, 2008; 김정란·김정신, 2009; 박인전·최외선·김애희, 2008; 이은경, 1999; 이창식·김윤정, 2006; 임인혜·박명운, 1987; 최정혜, 1997; 한경순, 1999; 허훈, 1988).

한편 부양부담과 관련된 연구는 1990년대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예를 들면, 김윤정·최혜경, 1993) 특히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을 검토한 연구(김수영, 2003; 서경현·천경임, 2009; 백경숙·권용신, 2008)를 비롯하여 노노(老老) 케어자와 일반 케어자의 부양부담 비교연구(김혜경, 2007), 농촌과 도시지역 비교를 중심으로 검토한 연구(이미애, 2009), 부양가족의 가족통제감, 가족 강점, 도덕 및 영성과 같은 가족신념체계와 부양부담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정순돌·유정애, 2009)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표되었다.

최근 발표된 노인부양과 관련된 연구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로 김윤정, 함정현, 이창식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중, 고, 대학생)과 부모세대를 조사하여 부양의식의 결정요인을 탐색하여 청소년의 부양의식과 부모의 부양의식이 관련성을 있음을 밝혔다. 즉 부모세대의 부양의식이 자녀세대에 영향을 끼쳐, 부모의 부양의식이 강하면 자녀의 부양의식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부양의식의 세대전이 효과를 검증하였다(김윤정 외,

2005). 석재은의 연구에서는 세대별 노후부양관의 차이 및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45세 이상 장노년층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고령일수록 또는 남성일수록 노후부양은 가족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수와 같이 가족자원이 많은 사람일수록 노후부양은 가족책임으로 인식하는 반면 경제적 자원과 건강자원이 많으면 개인책임으로 인식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석재은, 2009a). 1994년 및 2004년 전국노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노후생활비 마련태도를 통해 노후부양관을 알아보고 노후부양관의 시계열 변화를 검토한 김정석은 1994년에 비해 2004년에는 노후생활책임 중 사회적 책임은 22.1%에서 43.0%로 높아진 반면 가족책임은 29.5%에서 13.4%로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즉 10년 사이에 노후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통적 가족 규범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저학력이나 농촌노인일수록 가족책임의식이 강했으며, 아들이 있는 노인 또한 가족책임의식이 강한 반면, 신체적 능력에 제한이 없고 소득이 있는 노인은 가족책임의식이 약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김정석, 2005). 한편으로 부양을 받을 대상자에 해당하는 노인의 관점에서 가족에게 기대하는 부양 기대감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본인의 모습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노인일수록 부양 기대감(부양받을 수 있을 거라는 안심감)이 높다는 결과를 통해(조추용, 2004) 노인의 긍정적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부양의식은 부양의 사회화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나 선행연구에서 부양의 사회화 인식과 관련지어 검토된 바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부양의식이 부양의 사회화 인식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 3. 가족응집성에 관한 선행연구

Olson et al(1985)은 가족응집성을 ‘가족원들 서로에 대해서 갖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가족응집성은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극단적 가족응집보다 균형잡힌 가족응집이 효율적인 가족기능을 도모한다고 가정하였다(민하영, 1992). 지금까지 가족응집성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아동·청소년학과 가정학에서 다루어진 주제이다. 아동·청소년학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기 적응·부적응의 원인으로 가정 내 가족구성원간의 가족응집성에 주목하여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생의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이 친구관계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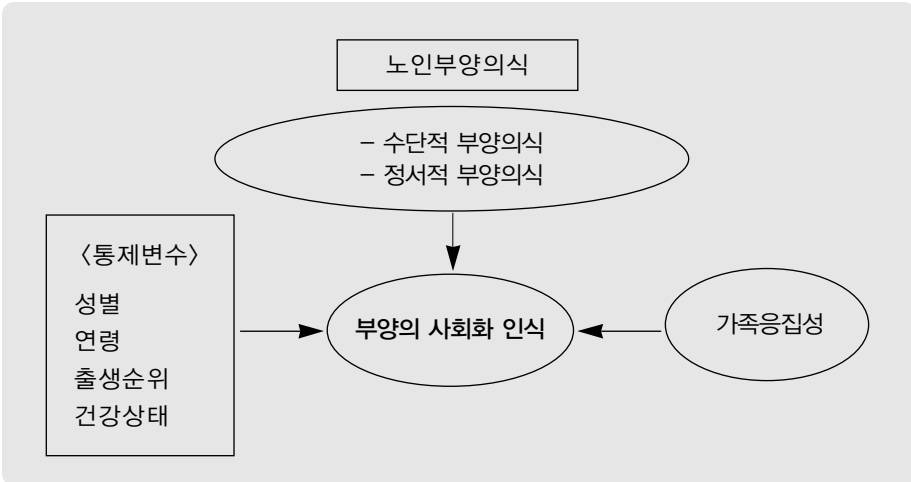
는지를 검토한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이 높다고 지각한 학생일수록 친구관계의 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김소희·오윤자, 2006). 최인재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가족응집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최인재, 2009). 한편 가정학분야에서의 가족응집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평등한 부부관계가 개인은 물론 가족원을 적응시키고 응집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 연구(홍상욱·배옥현, 1997), 가족응집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디스트레스(distress)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요인임을 검토한 연구(고정자·김갑숙, 2000)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이 부양의식과 마찬가지로 부양의 사회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상되어 가족응집성을 대학생 및 부모조사에 포함시켰다. 선행연구에서 부양의식, 특히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부양의식의 사회화 인식과 가족응집성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노인부양의 책임을 사회보다 가족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논리적 근거로는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정서적 유대감이 강하여 사회적인 부양보다 가족부양을 선호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 4. 연구목적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본격적인 부양의 사회화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대학생을 대표로 하는 청년세대와 대학생의 부모를 대표로 하는 중장년세대의 부양의 사회화 인식에 관련된 요인을 비교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관련요인으로는 노인부양의식 및 가족응집성에 주목하였다. 노인부양의식의 경우 수단적 부양의식과 정서적 부양의식으로 구분하였으며 부양의식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 인식이 강하여 부양의 사회화 인식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나아가 수단적 부양의식과 정서적 부양의식이 부양의 사회화 인식에 관련되는 양상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가족응집성의 경우 가족 간의 결속이 강할수록 가족응집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부양의 사회화 인식은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통제변수로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투입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 Ⅲ.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경상권 및 전라권에 소재한 두 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그들의 부모에 해당하는 중장년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개 대학의 재학생을 임의로 표집하여 대학생 본인의 조사에 응답하게 한 후, 대학생에게 부모조사표를 지참하여 귀가하게 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표를 완료하여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분석은 조사 협조에 응하고 자료에 결손이 없는 501명의 자료이다. 조사기간은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이다.

#### 2. 측정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측정도구는 아래 <표 1>에 요약한 바와 같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부양의 사회화 인식

부양의 사회화 인식은 太湯 외(2009)가 사용한 3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첫 번째는 노부모가 부양이 필요할 때 어디서 돌봄을 받게 할지를 1) 병원이나 시설에서 돌보기를 원한다, 2) 병원이나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가족이 돌보기를 원한다, 3) 가족이 돌보기를 원한다 중 선택하게 하였다. 두 번째는 본인이 부양이 필요할 때 누구의 돌봄을 받고자 하는지를 1) 병원이나 시설에서 돌보기를 원한다, 2) 병원이나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가족이 돌보기를 원한다, 3) 가족이 돌보기를 원한다 중 선택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은 1) 정부나 지방공공단체가 책임져야 한다, 2) 가족과 정부, 지방공공단체가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 중 선택하게 하였다. 3항목의 Cronbach 신뢰도계수  $\alpha$ 는 자녀의 경우 .60, 부모의 경우 .68로 나타났다.

## 나. 부양의식

부양의식은 桐野 등이 개발한 척도를 참고로 하여 수단적 부양을 측정하는 7항목과 정서적 부양을 측정하는 4항목을 사용하였다(桐野 외, 2007). 각 항목은 5-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단적 및 정서적 부양의식이 높아진다. 자녀와 부모의 수단적 및 정서적 부양의식의 신뢰도 계수는 .76-.89로 나타났다.

## 다. 가족응집성

가족응집성을 측정하기 위해 Olson et al(1985)이 개발한 FACES III에 포함된 응집성 척도 10항목을 사용하였다. 각 항목은 5-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집성이 높다. 본 연구대상자에서 자녀의 경우 신뢰도 계수는 .88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경우 .79로 나타났다.

## 라.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학생조사 및 부모조사별로 <표 1>과 같은 내용을 질문하였다.

표 1. 측정도구 및 신뢰도

변수 및 내용	문항 수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
부양의 사회화 인식		
자녀(청년세대)	3	.60
부모(중장년세대)	3	.68
부양의식		
자녀(청년세대): 수단적 부양의식	7	.76
정서적 부양의식	4	.89
부모(중장년세대): 수단적 부양의식	7	.83
정서적 부양의식	4	.83
가족 응집력		
자녀(청년세대)	10	.88
부모(중장년세대)	10	.79

### 일반적 특성

자녀(청년세대): 성별, 연령, 형제자매 수, 출생순위, 출신지역, 학년, 조부모의 유무, 조부모와의 동거유무, 동거가족 수, 출신지역, 재학대학, 건강상태  
 부모(중장년세대): 성별, 학생과의 관계, 부모와의 동거의향, 자녀와의 동거의향, 출신지역, 자녀의 재학대학, 건강상태, 연령, 형제자매 수, 출생순위

## 3. 분석방법

대학생 및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대학생과 부모간의 부양의 사회화 인식, 부양의식, 가족응집성을 비교하기 위해 Chi-square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부양의 사회화 인식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회귀분석에서 일반적 특성은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응답자의 특성

조사응답자 중 대학생의 특성을 <표 2>에 제시하였다. 남성의 비율이 46.7%, 학년의 경우 2학년의 비율이 가장 높아 33.3%를 보였다. 조부모가 있다는 응답은 73.7%로 높

표 2. 대학생(청년조사) 응답자의 특성(N=501)

변수	범주	n(%)
성별	남성	234(46.7)
	여성	267(53.3)
학년	1학년	69(13.7)
	2학년	168(33.3)
	3학년	156(31.0)
	4학년	111(22.0)
조부모의 유무	있음	369(73.7)
	없음	132(26.3)
조부모와의 동거유무	동거	83(16.6)
	별거	418(83.4)
동거가족 수	1명	36(7.1)
	2명	56(11.1)
	3명	133(26.4)
	4명	182(36.1)
	5명 이상	94(18.7)
	무응답	3(0.6)
출신지역	도시	357(70.8)
	농촌	146(29.0)
	무응답	1(0.2)
대학	A대학	262(52.3)
	B대학	239(47.7)
건강상태	만족	262(52.3)
	보통	86(17.2)
	불만	153(30.5)
연령	평균	23.1(±4.6)
형제자매 수(1-7)	평균	2.4(±0.8)
출생순위(1-7)	평균	1.6(±0.8)

게 나타났으며 동거 비율은 16.6%였다. 동거가족 수는 4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36.1%였으며, 출신지역은 도시의 비율이 높아 70.8%,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은 52.3%, 평균연령은 23.1세로 나타났다. 평균 형제자매 수는 2.4명이었으며, 출생순위는 평균 1.6번째로 나타났다.

<표 3>에 제시한 조사응답 부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의 비율이 48.3%였으며 학생과의 관계에서 모 50.1%, 부 46.3%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부모와 동거의향이 있

표 3. 부모(중장년조사) 응답자의 특성(N=501)

변수	범주	n(%)
성별	남성	242(48.3)
	여성	259(51.7)
학생과의 관계	부	232(46.3)
	모	251(50.1)
	기타	11(2.2)
	무응답	7(1.4)
부모와의 동거의향	있음	210(41.9)
	없음	291(58.1)
자녀와의 동거의향	있음	167(33.3)
	없음	334(66.7)
가족 수	1명	9(1.8)
	2명	37(7.4)
	3명	66(13.2)
	4명	219(43.7)
	5명 이상	166(33.1)
	무응답	4(0.8)
출신지역	도시	373(74.5)
	농촌	126(25.1)
	무응답	2(0.4)
대학	A대학	265(52.6)
	B대학	239(47.4)
건강상태	만족	244(48.7)
	보통	106(21.2)
	불만	151(30.1)
연령	평균	50.2(±5.3)
형제자매 수(1-17)	평균	4.8(±1.9)
출생순위(1-16)	평균	2.9(±1.0)

다는 응답이 41.9%인 반면 자녀와의 동거의향은 33.3%를 보였다. 가족 수는 4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43.7%였고, 출신지역은 74.5%가 도시지역, 건강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48.7%였다. 한편 평균연령은 50.2세로 나타났다. 평균 형제자매 수는 4.8명으로 자녀세대에 비해 많았으며, 출생순위 또한 2.9번째로 자녀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2. 부양의 사회화에 대한 인식, 부양의식, 가족응집성

부양의 사회화에 대한 인식을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를 비교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부양을 병원·시설에서 하고자 하는 대학생의 비율은 9.7%인데 비해 부모는 20.4%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은 병원·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23.7%이고 부모는 대학생보다 높은 28.4%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에서 대학생은 정부라는 응답이 17.1%인데 반해 부모의 응답은 23.0%로 높게 나타났다. 즉 부양의 사회화에 대한 인식은 대학생이 [병원·시설과 가족] 혹은 [정부와 가족]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반면 부모의 경우 시설 혹은 가족이 각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병원·시설에서의 부양 및 정부의 가족부양 책임이 크다는 부양의 사회화 인식은 대학생에 비해 부모조사에서 높

표 4. 부양의 사회화에 대한 인식

의식	대학생(청년세대) n(%)	부모(중장년세대) n(%)	Chi-square검증
부모의 부양			
병원·시설	48(9.7)	100(20.4)	27.2***
병원·시설 + 가족	310(63.3)	262(53.5)	
가족	132(26.9)	128(26.1)	
자신의 부양			
병원·시설	116(23.7)	139(28.4)	34.4***
병원·시설 + 가족	307(62.7)	263(53.7)	
가족	67(13.7)	88(18.0)	
가족부양의 책임			
정부	84(17.1)	113(23.0)	46.2***
정부 + 가족	359(73.1)	302(61.5)	
가족	48(9.8)	76(15.5)	

\*\*\* p<.001

게 나타났다.

수단적 부양의식과 정서적 부양의식을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5> 및 <표 6>에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수단적 부양의식에 비해 정서적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청년 및 중장년세대에서 공통으로 나

표 5. 수단적 부양의식의 비교

의식	대학생(청년세대) n(%)	부모(중장년세대) n(%)	Chi-square검증
경제적 지원 1 (부모를 위해 저축)			
해야한다	436(87.9)	351(70.8)	7.1
모르겠다	42(8.5)	83(16.7)	
하지 않아도 된다	18(3.6)	62(12.5)	
경제적 지원 2 (생활비 지원)			
해야한다	427(85.7)	361(72.5)	4.5
모르겠다	56(11.2)	76(15.3)	
하지 않아도 된다	15(3.0)	61(12.2)	
경제적 지원 3 (복지의료비 부담)			
해야한다	434(87.3)	361(72.6)	15.7**
모르겠다	53(10.7)	77(15.5)	
하지 않아도 된다	10(2.0)	59(11.9)	
여행·취미생활지원			
해야한다	419(84.3)	320(64.4)	9.4
모르겠다	63(12.7)	88(17.7)	
하지 않아도 된다	15(3.0)	89(17.9)	
부양 1(부모가 자녀에게 부양 요구)			
해야한다	336(67.5)	273(54.8)	23.1***
모르겠다	110(22.1)	100(20.1)	
하지 않아도 된다	52(10.4)	125(25.1)	
부양 2(자녀가 부모 부양)			
해야한다	255(51.3)	271(54.5)	12.7
모르겠다	128(25.8)	108(21.7)	
하지 않아도 된다	114(22.9)	118(23.7)	
무리해서라도 노부모 지원			
해야한다	226(45.5)	214(43.1)	9.1
모르겠다	154(31.0)	115(23.1)	
하지 않아도 된다	117(23.5)	168(33.8)	

\*\*\* p<.001

타났다. 대학생과 부모에서 차이가 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료비 부담을 자녀가 해야 한다는 경제적 지원 3은 대학생이 부모보다 높은 반면 자녀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율은 부모조사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 요구를 하는 부양 2 항목에서는 부모보다 자녀세대인 대학생 조사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부양과 관련해서 부모의 상담역에서 대학생이 부모에서보다 상담역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6. 정서적 부양의식의 비교

의식	대학생(청년세대) n(%)	부모(중장년세대) n(%)	Chi-square검증
별거하더라도 교류 해야한다	465(93.6)	445(89.5)	7.5
모르겠다	23(4.6)	41(8.2)	
하지 않아도 된다	9(1.8)	11(2.2)	
단란한 시간 가져야 한다	474(95.2)	453(91.0)	7.1
모르겠다	20(4.0)	33(6.6)	
가지지 않아도 된다	4(0.8)	12(2.4)	
부모 건강에 유의 해야한다	478(95.4)	461(92.0)	1.7
모르겠다	21(4.2)	31(6.2)	
하지 않아도 된다	2(0.4)	9(1.8)	
부모의 상담역 해야한다	467(93.2)	458(91.4)	11.4*
모르겠다	33(6.6)	36(7.2)	
하지 않아도 된다	1(0.2)	7(1.4)	

\*\*\*p<.001

가족응집성을 비교한 <표 7>을 살펴보면 10개 항목 중 서로 도와줌과 친밀감과 관련된 항목을 제외한 8개 항목에서 대학생과 부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중장년세대가 청년세대에 비해 가족응집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7>의 가족응집성을 알아보는 각 항목은 ‘그렇다’ 혹은 ‘다소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가족응집성 ‘있다’로 간주하고, ‘어느 쪽이라고 할 수 없다’는 ‘모르겠다’로, ‘그다지 그렇지 않다’ 및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가족응집성이 ‘없다’로 재범주화하여 정리한 것이다.

### 3. 부양의 사회화 인식에 관련된 요인

표 7. 가족응집성 비교

가족응집성	대학생(청년세대) n(%)	부모(중장년세대) n(%)	Chi-square검증
가족응집성 1 (상담) 있다 모르겠다 없다	364(72.8) 62(12.4) 74(14.8)	411(82.2) 44(8.8) 45(9.0)	13.5**
가족응집성 2 (같이 시간을 보냄) 있다 모르겠다 없다	350(70.3) 89(17.9) 59(11.8)	404(81.1) 61(12.2) 33(6.6)	48.18***
가족응집성 3 (같이 하는 것) 있다 모르겠다 없다	257(51.6) 142(28.5) 99(19.9)	318(63.9) 107(21.5) 73(14.7)	40.9***
가족응집성 4 (가족이 하는 것이 좋음) 있다 모르겠다 없다	284(57.0) 128(25.7) 86(17.3)	348(69.9) 90(18.1) 60(12.0)	49.2***
가족응집성 5 (가족의 단결이 중요) 있다 모르겠다 없다	471(94.4) 24(4.8) 4(0.8)	462(92.6) 29(5.8) 8(1.6)	46.6***
가족응집성 6 (친구를 받아들이는 것) 있다 모르겠다 없다	387(77.6) 90(18.0) 22(4.4)	397(79.6) 73(14.6) 29(5.8)	47.0***
가족응집성 7 (서로 돕는 것) 있다 모르겠다 없다	445(89.2) 42(8.4) 12(2.4)	446(89.4) 44(8.8) 9(1.8)	4.1
가족응집성 8 (친밀감) 있다 모르겠다 없다	456(91.6) 32(6.4) 10(2.0)	459(92.2) 30(6.0) 9(1.8)	3.6
가족응집성 9 (모두가 같이 하는 것) 있다 모르겠다 없다	380(76.5) 70(14.1) 47(9.5)	418(84.1) 55(11.1) 24(4.8)	51.3***
가족응집성 10 (강한 연대) 있다 모르겠다 없다	421(84.9) 57(11.5) 18(3.6)	434(87.5) 36(7.3) 26(5.2)	24.4***

\*\*p<.01, \*\*\*p<.001



부양의 사회화 인식에 관련된 요인을 대학생과 부모별로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중회귀분석의 과정에서 성별, 연령, 출생순위 및 건강상태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은 수단적 부양의식 및 정서적 부양의식이 부양의 사회화와 유의미한 관련을 보이지만 가족응집성은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즉 수단적 및 정서적 부양의식이 높을수록 부양의 사회화 인식이 낮은 결과를 보였지만 가족응집성은 부양의 사회화 인식에 관련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부모조사에서는 수단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가족응집성 모두 부양의 사회화와 유의미한 관련을 나타내어, 부양의식이 높거나 가족응집성이 높은 중장년세대는 부양의 사회화 인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부양의 사회화 인식에 관련된 요인(중회귀분석의 결과)

요인	대학생의 부양의 사회화 인식 <sup>주)</sup>		부모의 부양의 사회화 인식 <sup>주)</sup>	
	상관계수	표준편회귀계수	상관계수	표준편회귀계수
성별 (남성: 1, 여성: 0)	-.00	-.03	-.00	-.01
연령 (실수)	.05	.03	-.01	-.03
출생순위 (실수)	.02	.02	-.05	-.03
건강상태 (만족: 2, 보통: 1, 불만: 0)	.05	.04	-.00	.05
가족응집성 (10항목 : 0-40)	-.19***	-.06	-.21***	-.14**
수단적 부양의식 (7항목 : 0-28)	-.35***	-.18***	-.18***	-.12*
정서적 부양의식 (4항목 : 0-16)	-.40***	-.29***	-.24***	-.16**
중상관계수		.44		.30
분석대상자 수		485	482	

주) 부양의 사회화를 측정하는 3항목에 해당하는 부모의 부양, 자신의 부양, 가족부양의 책임 3항목의 합계득점. 시설이나 병원의 케어를 희망할수록, 또한 가족보다 정부가 노인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일수록 점수가 높음.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이 가족에서 정부로 분산되는 현시점에서 부양의 사회화 인식에 주목하여 향후 노인부양에 대한 정부나 가족

의 역할 조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세대)대학생과 (중장년세대)부모세대 조사를 실시하여 부양의 사회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부양의 사회화 인식에 부양의식이나 가족응집성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세대별로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양의 사회화 인식에 관련된 요인을 검토한 결과에서 청년세대인 대학생에서는 수단적 부양의식 및 정서적 부양의식이 부양의 사회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가족응집성은 유의미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즉 수단적 및 정서적 부양의식이 낮을수록 부양의 사회화 인식이 높았지만 가족응집성은 부양의 사회화 인식에 관련되지 않았다. 한편 부모에 해당하는 중장년조사에서는 수단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가족응집성 모두 부양의 사회화와 유의미한 관련을 나타내어, 부양의식이 낮거나 가족응집성이 낮은 부모는 부양의 사회화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양의식이 높을수록 부양의 사회화 인식이 낮고 반대로 부양의식이 낮을수록 부양의 사회화 인식이 높은 결과가 대학생은 물론 부모조사에서 공통으로 도출되었다. 한편으로 해석하면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낮을수록 사회가 돌보아야 한다는 의식이 높은 것은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정서적 부양의식과 같은 가족이 전통적으로 역할을 담당해 온 부분까지도 부(負)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결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사회의 노인부양과 관련된 환경은 가족과 사회(공적서비스)를 공동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부양의식이 높은 사람은 사회가 노인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양의 사회화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늘어나는 요보호노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가족고유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박경숙(2002)이 제안한 것처럼, 앞으로 정서적 부양과 같은 가족 고유의 부양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가족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부양하는 체계를 정비해나가는 것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부양의 사회화 인식에 있어서 부모에 비해 대학생에 해당하는 청년세대에서 사회와 가족이 공동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반면 중장년의 경우 정부 혹은 가족이 각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정부가 노인부양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양의 사회화 인식은 부모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세대의 경우 본 연구의 조사항목에서 제외되었지만 노인부양 당사

자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보다 현실적인 인식을 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현 시점에서 노인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면서 가족이 공동으로 노인을 돌보기에는 장애요인이 산재해 있다. 그 이유로는 병원 및 시설이 자택에서 가까이 위치하기 힘들뿐 아니라 재가에서 주간보호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태가 중증인 경우에는 재가에서 지속적으로 돌보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가족이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부양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증인 노인을 재가에서 돌보는 경우 현재보다 다양한 서비스(예를 들면 야간보호서비스 등)를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대학생의 인식결과에서 나타난 사회와 가족이 공동으로 노인을 부양하겠다는 인식은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는 시설이용과 가족의 복합적인 부양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함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부양의 사회화 인식에서 중장년세대는 정부와 가족이 공동으로 부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한 결과가 도출된 반면, 청년세대에서는 가족과 사회의 공동부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선진외국에서 가족의 정서적 지원(emotional support)기능과 사회의 구체적 지원(instrumental support)기능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셋째, 부양의식에서는 정서적 부양의식이 수단적 부양의식보다 높게 나타나 정서적 부양의식을 질문하는 4개 항목에서 90%전후가 각 정서적 부양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대학생과 부모의 공통된 결과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성숙한 선진국에서처럼 경제적 지원체계인 연금제도나 노인부양의 지원체계인 요양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면 가족의 역할이 정서적 지원에 비중을 두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사회도 연금제도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수단적 부양은 정부나 사회의 역할로 인식하기 시작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처럼 청년세대 및 중장년세대에서 모두 노인의 정서적 부양의식이 높다는 결과는 가족의 높은 정서적 부양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부양에서 정서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기능을 유지 및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면, 연구대상자가 일부 지역의 대학생과 부모를 편의표집한 자료를 분석하였기에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김윤정 외(2005)의 연구와 같은 대학생조사와 부모조사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춘 분석방법은 사용하지 않

아 향후 보다 섬세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시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불과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제도가 정착된 시점에서 부양의 사회화 인식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양의 사회화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향후 부양환경이나 부양행동에 관련된 사회화 정도를 검토하는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김혜경은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노인보건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나사렛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관심분야는 노인복지 및 노인보건 등이다(E-mail: kyung@kornu.ac.kr).

박천만은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계명대학교 공중보건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관심분야는 보건복지, 보건교육, 건강증진분야이다(E-mail: cmpark@kmu.ac.kr).

中嶋和夫는 일본 소와의과대학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오카야마현립대학 보건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관심분야는 보건복지 및 연구방법론이다(E-mail: kazuo@fhw.oka-pu.ac.jp).

## 참고문헌

- 고정자, 김갑숙(2000). 가족적응성, 응집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8(1), pp.1-14.
- 권순만, 박건희(2006). 노인장기요양 재원조달체계: 제도의 유형과 정책과제. *한국노년학 연구*, 15, pp.9-36.
- 김명희(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방문간호사의 역할, 업무분석.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3(2), pp.232-250.
- 김소희, 오윤자(2006).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이 친구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5(4), pp.313-327.
- 김수영(2003). 치매노인 가족부양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가족부양자를 위한 정책대안의 모색. *사회복지정책*, 17, pp.77-105.
- 김윤정, 최혜경(1993). 치매노인의 장애기간과 부양자의 대처자원이 부양자의 부담 및 양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3(2), pp.63-83.
- 김윤정, 함정현, 이창식(2005). 부양의식의 세대차이와 결정변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학연구*, 12(4), pp.243-261.
- 김윤정, 장세철(2008).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 비교. *일본문화학회*, 39, pp.211-229.
- 김정란, 김정신(2009). 가족기능과 가족주의 가치관이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pp.133-149.
- 김정석(2005). 한국노부모들의 노후부양관 변화, 1994-2004년. *한국노년학*, 25(4), pp.1-11.
- 김혜경(2007). 재가 요보호노인 가족케어자의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 노노(老老) 케어자와 일반 케어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7, pp.49-66.
- \_\_\_\_\_ (2008). 노인의 유산상속과 사회적 지원. *한국노년학*, 28(2), pp.309-323.
- 민하영(1992).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3(1), pp.112-124
- 박경숙(2002). 한국과 일본에서 장애인 가족부양자의 사회적 보호서비스에 대한 이용 욕구: 가족부양과 사회적 보호서비스는 대체적 관계인가 보완적 관계인가? *한국*

- 노년학, 22(1), pp.241-260.
- 박재간(1985). 21세기 노인문제와 사적부양기능. 한국노년학, 5, pp.54-61.
- 박인전, 최외선, 김애희(2008). 대학생의 낙관성과 가족통제감이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7(1), pp.13-26.
- 백경숙, 권용신(2008).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39, pp.33-52.
- 서경현, 천경임(2009). 치매환자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과 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사회복지원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3), pp.339-357
- 서동민(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구조와 전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4(2), pp.27-56.
- 서병숙, 이신숙(1991). 농촌 기혼여성 노부모 부양 의식 부양 수행도. 한국노년학, 11(2), pp.191-211.
- 서소영, 김명자(1998). 며느리의 시부모부양에 따른 보상, 부양의식, 부양행동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pp.81-107.
- 석재은(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개발의 특성과 평가. 사회복지연구, 39, pp.253-286.
- \_\_\_\_\_(2009a). 세대별 노후부양관의 차이와 영향요인. 보건사회연구, 19(1), pp.163-191.
- \_\_\_\_\_(2009b). 돌봄서비스의 사회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복지동향, 128, pp.28-32.
- 손용진(2007).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케어 매니지먼트에 관한 고찰. 한국노년학연구, 16, pp.41-57.
- 송다영(2004). 부양의식을 통해 본 노인부양 지원정책 방향성: 기혼여성의 부양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9, pp.207-233.
- 송신섭(2008).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극동사회복지저널, 4, pp.85-104.
- 신혜정(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금급여 도입 필요성: WTA를 통한 적정 현금급여액 추정. 한국노년학, 29(1), pp.177-194.
- 이동영, 이재현(2008).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조건의 국가별 비교평가를 통한 발전 방안 연구: 한국, 독일, 일본의 제도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7(3), pp.189-227.

- 이미애(2009). 장기요양보호노인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44, pp.71-88.
- 이용석(200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보험학회지, 79권, pp.163-193.
- 이윤경(2009).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형태 결정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9(3), pp.917-933.
- 이은경(1999). 대학생의 가족주의가치관과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 pp.45-65.
- 이준복(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법적 연구. 세계헌법연구, 14(3), pp.329-360.
- 이준우, 서문진희(2009).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노년학, 29(1), pp.149-175.
- 이창식, 김윤정(2006). 청소년의 부양동기와 부양의식간의 관계: 성별과 거주지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3(6), pp.101-125.
- 임정기, 최명민, 김옥, 김연수, 백경원, 박인규(2008).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에 대한 등급판정위원의 인식조사: Q 방법론의 적용.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2, pp.111-142.
- 임인혜, 박명윤(1987). 한국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지, 13(1), pp.69-74.
- 임춘희, 정옥분(1998). 분가한 도시장남부부의 부양의식유형: 세대간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6(1), pp.163-177.
- 장우심(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3, pp.263-286.
- 전병힐(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추정모형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141, pp.30-41.
- 정완교(2009).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의 결정요인. 한국개발연구, 31(1), pp.140-167.
- 정순돌, 유정예(2009). 노인부양가족의 가족신념체계와 부양부담의 관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5, pp.67-88.
- 정재욱(2009). 한-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구조의 특징에 대한 비교 고찰. 지역발전연구, 8(2), pp.267-299.
- 조추용(2004). 노인이 가족에게 기대하는 부양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노인복지연구, 24, pp.71-99.
- 조추용(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확보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연구, 16, pp.9-40.
- 최인재(2009).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자아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6(4), pp.1-23.
- 최승호(2008). 충청북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시설 인프라 구축 방안. 충북연, 2008년 2호, pp.1-48.
- 최정혜(1997). 현대 사회의 가족 관계에서 빚어지는 전통 윤리의 양상: 도시·농어촌 대학생의 효 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비교 연구. 경남문화연구, 19, pp.3-37.
- \_\_\_\_\_ (1998). 기혼자녀의 효 의식,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 부양의식: 농어촌·도시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14(1), pp.123-134.
- 한경순(1999). 남녀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 대한가정학회지, 37(9), pp.13-24.
- 허훈(1988). 한국대학생들의 노부모에 대한 가족부양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8, pp.89-106.
- 홍상욱, 배옥현(1997). 부부평등에 따른 자아정체감 및 가족응집성·적응성에 관한 연구. 새마을 지역개발연구, 21, pp.173-192.
- 小笠原裕次(2007). 老人福祉論, ミネルバ書房.
- 増田雅暢(2003). 介護保険見直しの論争, 法律文化社.
- 太湯好子, 實金榮, 高井研一, 中嶋和夫, 桐野匡史(2009). 家族凝集性と親扶養意識が介護の社會化の意識にえる影響: 東アジア圏域の日本と中國東北地域の比較. 日中研究交流資料. pp.1-10.
- 桐野匡史, 柳漢守, 尹靖水, 黒木保博, 中島和夫(2007). 老親と同居している成人子の老親扶養意識と人口學的要因および家族凝集性との關連性. 岡山縣立大學保健福祉學紀要, 14(1), pp.19-28.
- Olson, D. H., Portner, J., & Lavee, Y. (1985). "FACES III."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ocial Care for the Elderly: Comparison Analysis between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Group

**Kim, Hye- Kyung**  
(Korea Nazarene University)

**Park, Chun-Man**  
(Keimyung University)

**Nakajima, Kazuo**  
(Okayama Prefectural University)

---

National long-term care was introduced in 2008 after facing the limitation of family care for the elderly under the circumstance of rapid aging society. Although a lot of papers explored the national long-term care issues, the aspect of social care rather than family care was not fully discussed in the previous research. This paper illustrates the correlates of the perception of social care from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examining instrumental family care perception, emotional family care perception, and family cohesio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Perception of social care was stronger among the parents compared than their children group. 2) Correlates of the perception of social care was differed by college student and family group. More specifically, higher score of social care was related to the lower instrumental and emotional family care perception in the college student. On the other hands, higher social care score was related to the lower family care perception and lower family cohesion in the parents group. It is suggested that family and society share the elderly care responsibility.

---

**Keywords:** Perception of Social Care, Perception of Family Care, Family Cohesion, College Students-Parents Survey